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47 호 현대불교
2019년 6월 5일(5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자기 안으로 모든 것을 굴려서 자기가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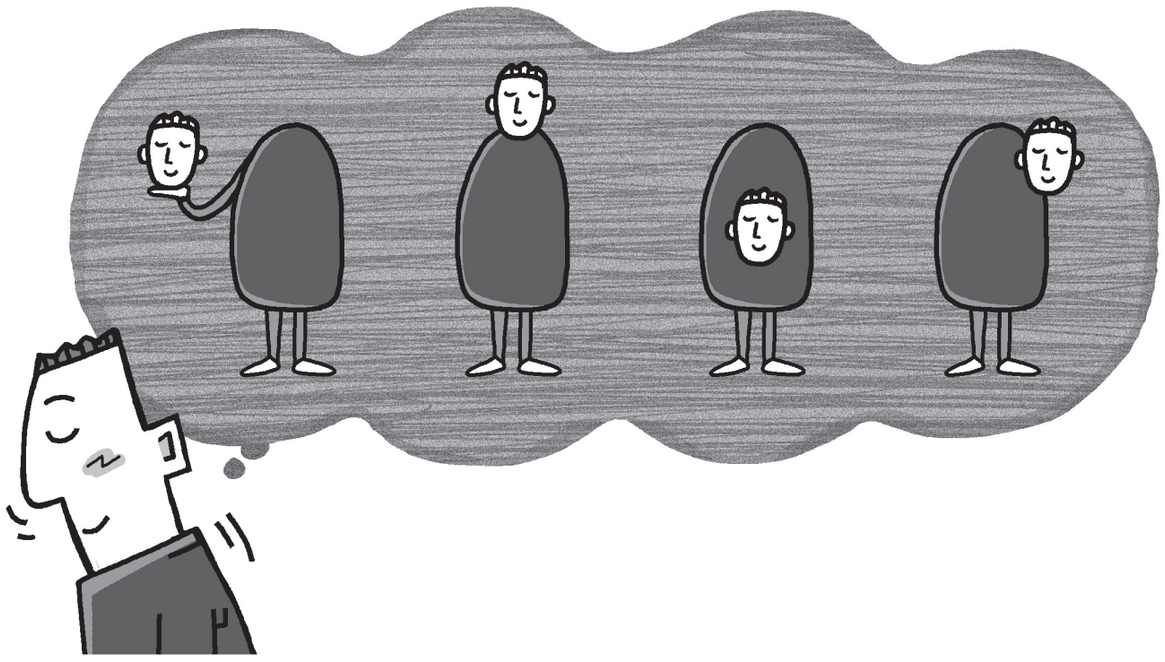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 봅시다. 지구에 관한 건도 옛부터 활동하고 시각적으로 움죽거리던 장소가 지금 장소와 둘이 아니라는 거, 예전에도 우리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있노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모든 것을 놓는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하는 그것이 방하착(放下着)이라면 첫째, 모든 잡념과 전자에서부터 얻은 그 습성을 다 녹여 버리고 자기의 그 참 생수 맛을 봐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이차적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상대방과 나와 다시 죽는 법을 또 배워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과 나와 더불어 같이 나툴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과 나와 죽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나와 같이 나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재차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을 살림살이에서 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아주 놔 버리는 데, 맡겨 놓고 사는 데에 여념이 없어야 하는 것이, 온갖 작동을 하면서도 그 작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주인공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운전수에 모든 것이 달려 있듯이 모든 걸 거기에 맡겨 놓음으로써 전자부터의 자기 종 문서를 몰락 태워 버릴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탄생했을 때 내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엉뚱하게 이 세상에 걸맞지 않는 말과 행이 솟아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관을 통해서 내가 보고 이것이 걸맞지 않는다면 자기가 제재해서 거기다 다시 놔야 되는 법입니다. 밖에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안팎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양면을 다 쥐고 갈피를 잡고 즉각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 잘됐다는 걸 번연히 안다면은 이것을 믿고 들어가라. 믿지 않는다면은 상대가 걸리고 상대가 걸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믿고 상대가 없다면 불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소릴 들었다 저기에서 저 소릴 들었다, 저걸 봤다 이걸 봤다 했을 때에 믿지 못하면 나는 어떠한 말을 한다, 행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라면, 둘로 보지 않았다면, 믿는다면 '아, 그렇기도 하겠지. 고정됨이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하는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한마디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는 거죠.

자기 안에다 모든 것을 굴려서 '아, 어찌 저렇게,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러한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찌 이렇게 될까?' 하고 안으로 굴려서 자기가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세 단계가 없는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도리를 거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은 같이 죽어서 같이 나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건 심사숙고해야 된다.

여러분이 선원에 오시는데 만약에 여기 오시는 분들만 구제를 하는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게 부처님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어디 앉아 있는 거나 서 있는 거나 고정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살림살이처럼 남편이 급하면은 급한 대로 나가서 뛰다가 사흘도 못 들어오고 나흘도 못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남은 바빠서 돌아치는데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말입니다. 제때에 밥도 못 먹고, 제때에 잠도 못 자고, 참, 피로한 몸을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들어온 사람더러 말하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신 어디 갔다 왔어?"하고, "나는 죽도록 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당신이 좀 더 집에서 잘해 줬으면 자식들과 모든 것이 평안할 거를 왜 당신은 나가서 그렇게 돌보지 않느냐? 전에는 안 그러더니 맘 변했다." 이거거든. 그러나 남편은 그게 아니라 제 속을, 나가서 일하는 걸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 또 만약에 말을 해서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 있는 말이라면 말을 못 하는 거라. 그렇다면은 말을 못 하고 "나를 믿어라.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될 거다." 이러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믿어지고 저렇게 하는 것도 믿어진다면 아무 말 대상이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잘 알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국내 돌아가는 것도 알고, 모든 거를 보고 알죠. 그러면서 답답하게 마음을 좁게 생각하면서 내 생활이나 가정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걸리는 일들이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선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몸뚱이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뭐 괜찮지 않냐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일할 때에는 말도 그렇고 몸뚱이도 그렇고 그것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그냥 순간순간 급하게 돌아가면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는 이 마음들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떠할까? 좀 지혜를 넓힌다면 어떠할까?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둘을 생각하고 셋을 생각하고 넷을 생각하고 백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것이 유리할까? 여러분을 위해서지 여러분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누구나가 목탁이나 쳐 주고 염불이나 해 주고 얼굴이나 봐 주고 말이나 조금 해 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도 편안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알지 못하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그걸 알텐데 그걸 모르고 좁게 생각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또 스님네들, 보살님들, 보살행 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면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을 인도해 가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커버해 가면서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죽이나 아쉽지 않고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말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시대가 바뀌져서 호국 불교나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일을 하려고 해도 몸은 가만히 놔두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봐서 어떠한 것이 제일 문제일까요? 그걸로 말미암아 '저 스님은 뭐를 하길래 그러나?' 하고 의정을 가지고 한번 관(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안으로 굴려 봐야지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돌아오면은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을 한 번 뛰어넘을 수가 없이 거기에서 멈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참지혜를 넓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전에 얘기했듯이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그 마음과 모습과 이 뜻이, 장소와 모든 것이 전달이 돼서 지구가 생겼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에 의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수화풍 네 친구가 동업을 해서 회사와 같이 형성을 해 가지고 그걸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쪽쪽이 나누다 보니까는 대천세계(大千世界)니 중천세계(中千世界)니 소천세계(小千世界)니 이런 문제가 나왔고, 오늘날에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행성이 생겼고 은하계가 생겼고 또 우주라는 이름이 생겼고 지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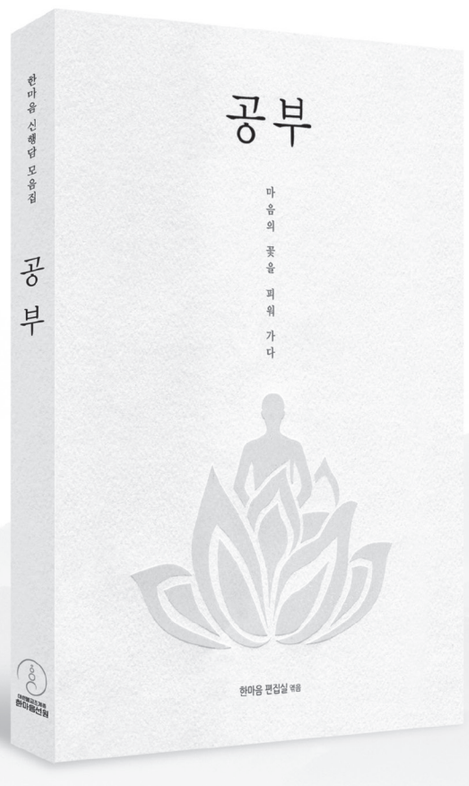
우리가 지구의 모든 형태나 모든 작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 삼각원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자력으로써 돌아갈 때는 무전자력,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떠한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전자력과 전자력, 또는 유전자력 그것이 한데 합쳐지니까 원자력으로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원자력에서 나가는 그 자체로 인간이 형성된 거와 같이, 좀 다르지마는 말을 하자면 그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에서 그 힘으로써 작동하는 데는 삼 단계가 있다, 인간에게도 있고…. 우린 그 원자력에서 나오는 작동하는 분비물에 지나지 않는다. 분비물에 지나지 않는 그 물이, 액체가, 찬물의 액체나 더운 가스의 액체가 한데 어우러져서 나올 때는 1키로에 한 점 빠지는 그런 거리마다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합니다. 이 지구 자체의 그 내막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차가 돌아가는데 차 안에 그냥 서 있듯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으로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지금,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